

코로나 기세등등... 누적 확진자 2400명 돌파

20~22일 사흘새 117명 확진... 이달만 683명
 종합병원·대형마트서도 신규 집단감염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 주말을 맞은 제주지역에서 무더기 연쇄감염이 잇따라 나타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52명(2319~2370번), 21일 35명(2371~2405번), 22일 오후 5시까지 30명(2406~2435번)이 확진되는 등 주말과 휴일 사이 1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 관련기사 5면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43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달 들어서만 683명이 감염됐다. 또 최근 일주일 사이 293명이 확진돼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86명을 보여 여전히 대우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형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이 이어져 5명 이상이 연쇄감염돼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사례가 주말 사이 3건 발생했다.

우선 신규 발생은 아니지만 예초

지인 모임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던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노래연습장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역학조사 결과 기존 '제주시 지인 모임8'로 명명된 집단감염 확진자 중 상당수 동선에 제주시 소재 노래연습장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을 다녀간 후 연쇄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특정됐다.

이로써 '제주시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기존 개별사례 확진자 30여명까지 포함돼 현재까지 89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최일선 방역망인 종합병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제주시 소재 모 종합병원에서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등에게 연쇄감염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12명이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머

물렀던 2개 병동을 코호트 격리했다.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이마트 신제주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나타나 동선이 공개됐다. 이마트 신제주점에서는 지난 20일 마트 관계자 2명이 확진된 이후 21일 3명, 22일 9명 등 총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자 노출 시간인 지난 17~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마트 신제주점을 방문한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제주시 학원2', '제주시 음식점3' 집단감염에서도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됐다.

한편 지난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70대가 8일 뒤인 지난 20일 사망했다는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기초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백신 접종 후 지난 19일부터 구토와 복통 등의 증세를 보이다 상태가 악화돼 지난 20일 숨졌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비오는 날 더 멋진 천지연폭포 제주도전역에 비가 내린 21일 서귀포시 천지연폭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쓴 채 폭포를 구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내년 예산에 4·3 희생자 배보상 반영”

전해철 행안부장관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밝혀
 “내년 전체에 지원 못하면 매년 단계적 지원 준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3(배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은 전 장관에게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

에 무게를 두면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 장관은 “기준 설정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어떤 식으로든 올해 예산을 특정된 액수 또는 확보된 액수를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급 1차 년도가 2022년도에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4·3 배보상 연구용역은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희생자의 연령대별 차등지급 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이 함께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9월 첫 주에 연구용역 결과를 정식 보고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은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뒀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4·3의 특수성과 통과의 지류라는 특별법의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연구용역은 정책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을 것이고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부미변기자 bu8385@ihalla.com

제12호 태풍 ‘오mais’ 온다

23일 오후 7시 제주에 최근접... 비 피해 우려

올해 처음으로 제주에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2호 태풍 ‘오mais’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3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제주와 가장 근접한 시간대는 23일 오후 7시~오후 8시 사이가 되겠다. 이 때 오mais의 위력은 중심기압 1000hPa, 최대풍속 초속 18m, 강

풍반경 130km이다.

오mais로 인해 제주는 강풍보다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바람의 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태풍과 정체전선, 저기압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23일부터 24일까지 시간당 50~7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23일부터 2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300mm이고, 산지의 경우는 4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송은범기자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2435
 22일 17시 기준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 전통의 활동조합
정신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수상품인
함동조합 활성화 및 경제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요사업자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냉동창고 콘크리트 폴리싱

영성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타운 물류센터